■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19〉

내국사하(奈國事何)

국가의 일을 어찌합니까!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총선이 끝났다. 이 선거에 입후보했던 사람들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온 힘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투표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가 경쟁자를 제치도록 선택해 준 국민을 위하여 사심 없이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당선자들은 당선 소감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모두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져도 될까?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쩐지 액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공적인 일을 위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과거에도 선거 때에만 입에 발린 말을 했다가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 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아온 터여서이다.

사실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이나, 성무멸사(成務滅私), 이공멸사(以公滅私) 같은 말은 이미 관제(官制)를 적어 놓은 주관(周官) 같은 책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 책부원구(冊府元龜) 같은 책에도 그 예를 적어 놓았으니, 당연한 말이 이렇게 자주 강조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원 된 사람들도 오히려 이사멸공(以私滅公)하는 일이 많았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에 한 가지 덧붙여서 본다면 이들이 설사 멸사봉공의 뜻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능력도 문제다.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일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거기간 중에 팬데믹(Pandemic, 대유행병)이 나타났는데, 코로나 이야기만 있었지 그 이후에 나타날 엄청난 충격에 대하여 말한 것을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팬데믹 이후로 코앞으로 불어 닥친 각국의 이동제한으로 외국노동자의 유입이 제한되니 농촌에는 인력수급이 안되어 씨앗을 제때에 뿌릴 수가 없게 될 것을 걱정해야 했다. 봄에 파종을 못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어서 다음 겨울이 되면 아사(餓死)의 재난이 기다릴 것이 뻔 한일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농사가 망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곡창지대인 미주(美洲)지역에도 이동제한으로 외국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씨앗을 못 뿌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여파는 곡물의 수입도 어려워질 것이니 얼마나 큰 재앙인가? 다만 6개월만 내다보아도 재앙이 눈에 선하다. 그러하니 70년간 일궈온 기간산업에서는 대량해고 상태에 들어가고 곧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하였고, 이것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향후 70년 동안을 기아의 수준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위기를 얼마나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이번 선거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절망적이다. 당장 농사가 어렵고, 공장이 문을 닫고 산업 전체가 위기 속에 빠져 드는데 눈앞에 있는 권력을 잡아 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설사 이를 가져 본들 무엇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역사서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을 읽다 보면 북송시대에도 녹봉을 받는 관원 가운데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국익에 앞서 사익에 골몰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일하려던 관원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필(富弼)이 겪은 일인데, 요즈음에도 한 번 읽어 봄직하다. 송(宋) 인종(仁宗) 때에 북쪽에 있는 요(遼)로부터 갑자기 땅을 할양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미 아버지 진종(眞宗) 때에 요와는 전연(澶淵)의 맹약(盟約)을 맺은바 있다. 요즈음 말로 보면 국제 조약을 맺은 것이다. 과거 오대(五代)시대에 전연(澶淵) 등 16개 주의 땅이 한 때 요의 영역이었으니 요에서 이를 돌려 달라고 하여 송·요 두 나라는 전쟁을 했고, 마지막엔 겨우 화의(和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때에 송은 매년 세폐(歲幣)로 요에 30만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그 후로 40여 년 간 이러한 체제로 송·요간에는 외교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별안간 송에게 다시 땅을 내 놓으라는 국서(國書)를 들고 사신이 왔다. 송으로서는 참 어려운 국난(國難)의 문제를 만난 셈이다. 송에서 과거 40년 전에 이미 양국 간에 맹약을 맺었는데,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한다고 항변해 보았자 소용없는 일이다.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40년 전 약속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어린애 같은 생각이다. 분쟁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송조의 어리석음일 뿐이다.

하여간 송의 입장에서 땅을 떼어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요(遼)도 일단 국서까지 보낸 마당에 순순히 없었던 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기에 풀기 어려운 함수 문제였다. 이를 풀기 위하여 송에서는 이 대요(對遼) 전문가 부필을 관반(館伴) 즉 요에서 온 사신의 카운터 파트너로 뽑았다. 그는 여러 차례 요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는 요를 잘 아는 유능한 인물이었기에 교섭을 잘하라고 한 것이다.

요의 요구를 바로 거절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요는 이미 전쟁을 하자는 뜻을 비쳤으니 거절한다는 것은 요와 다시 전쟁을 치르자는 말이었다. 전쟁의 참혹함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는 얼마 전에 조그만 나라인 서하와의 전쟁을 했던 송으로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 전쟁을 무릅쓰고 거절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송왕조는 그동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군사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요와의 전쟁을 피해야 했다.

그러니 이 교섭이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마냥 이 문제를 두고 있을 수는 없었다. 조속히 해결은 해야 했지만 그 방법이 쉽지 않았다. 그러니 요사(遼使)가 송에 머무르는 동안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이번에는 교섭을 연장하여 송은 요로 사자를 파견하여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여야 했다. 이때에도 부필은 송의 사자로 선발되어 요(遼)에 갔다.

사실 요는 땅을 베어 달라는 조건과 두 나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인종의 딸을 요에 시집보내라는 것이었다. 송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세폐(歲幣)를 늘려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싶었다. 그러나 요(遼)도 속으로는 그것이 목표지만 자칫 구걸로 보이는 구차한 요구여서 이 말은 꺼내지 않았다. 송에서 이를 짐작하고 세폐를 늘려 주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요에서는 짐짓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까지 했다. 그러니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돈으로 입막음을 해야 하는 어려운 교섭이었다.

부필이 요에 도착하여 요의 황제와 대면하면서 외교 교섭을 벌였다. 힘든 샅바 싸움이었다. 요의 황제가 땅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하자, 부필은 요의 속뜻을 아는지라 의연히 송도 군사를 동원하여 막을 터이니 마음대로 해 보라고 대답하였다. 공주를 시집보내라는 말에는 지금 4살이니 앞으로 10여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일을 지금에 미리 결정할 수 없다는 말로 응수하였다. 긴장되고 지루한 이러한 교섭을 통하여 송의 목표대로 요의 황제의 체면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세폐를 늘려 주는 것으로 간신히 결론을 냈다. 부필이 송의 의도대로 결론을 냈으니 성공적으로 외교 수완을 발휘한 것이고 부필의 역량을 잘 드러나기도 했다.

교섭을 마치자 요의 황제는 부필에게 송에 가서 교섭한 내용을 국서(國書)로 써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90% 성공한 교섭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 간 것이다. 이제 조약 문서를 교환하고 다시 외교적으로 우호관계에 들어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부필이 급히 송으로 귀환하여 교섭결과를 인종황제에게 보고하자 인종도 기뻐하며 다시 국서를 들고 가게 하였다.

드디어 부필은 재상 여이간에게 황제의 지의(旨意)를 전하자, 그는 부필로 하여금 요인(遼人)에게 회답하는 편지와 아울러 서약문서(誓約文書)의 초안(草案)을 잡게 하여 국서(國書) 두 통과 서약문서 세 통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문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재상인 여이간(呂夷簡)이 지휘하는 상서성이었기에 부필은 요로 먼저 떠나면서 문서가 작성되면 바로 이를 가지고 뒤쫓아 와 전해 달라고 하였다. 여기에 송이 요와의 교섭을 급하게 마무리짓고자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이때 부필은 먼저 떠나면서 미심쩍었는지, 정식문서 다섯 통 외에 부본(副本)을 하나 더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하였다.

드디어 황제의 심부름꾼인 중사(中使)가 서약문서 등 국서와 부본을 싸가지고 뒤쫓아 가서 무강(武強, 河北省 衡水市)에 이르러서야 부필을 만나 이를 전해 줄 수 있었다. 이를 받고 나서도 부필은 계속하여 요를 향하여 가면서 '재상 여이간의 사람됨으로 보아 문장이나 말씨에서 요에게 꼬투리를 잡힐 만한 것을 넣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재상 여이간은 부필이 성공적인 외교관계를 맺게 되면 재상인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고 부필의 지위가 높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국가가 손해를 보고 곤경에 처하더라도 부필이 실패하여 곤경에 처하기를 바라는 이사멸공(以私滅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부필은 부본을 열어 보았고 결국 자기가 염려한 대로였음을 발견하였다. 그 속에는 과거에 이미 전연의 맹약에서 조약에 포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다. 이미 40년 전에 체결된 내용을 다시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이대로 가지고 간다면 다 합의한 교섭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분명하였다. 급히 수하 두 사람을 보내어 경사로 돌려보내어 황제에게 이 사정을 말하였더니 그러면 문서를 주지 말고 말로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국가 간의 맹약을 '말로 하라'고 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지시였다.

급해진 부필은 이것이 재상 여이간의 농간(弄奸)인 것으로 판단하고 요에 줄 선물보따리는 수하에게 맡기고 가던 길을 되돌려서 밤중에 직접 경사로 달려왔다. 경사에 도착한 시각이 밤중이어서 규정에 따라서 황궁에 들어 갈 수 없다는 합문리(閤門吏)를 꾸짖어 밤중에 황제를 만났다. 인종을 만나자 마자 부필은 보고하였다. "집정자(執政者)가 이렇게 한 것은 신(臣)을 죽는 자리에 두려는 것입니다. 신이 죽는 것은 애석할 것이 없지만 나라의 정사(政事)는 어찌합니까!"

부필은 자기 한 사람은 죽어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황제 인종은 급히 재상 여이간 등을 불러서 이를 물었더니 여이간이 태연하게 "이것은 잘 못되었으니 마땅히 바르게 고쳐야 하겠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중대한 실수를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넘어가려는 것이었다.

이 말은 들은 부필이 화가 나서 거칠게 재상 여이간을 공격하였다. 옆에 있던 여이간의 한 패거리인 안수(晏殊)가 "여이간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무엇인가 잘 못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꼬리 자르기로 여이간을 비호(庇護)하고 나섰다. 부필이 화가 나서 말하였다. "안수가 간사(奸邪)하여 여이간에게 한 무리가 되어 폐하를 속이는구나!"

드디어 부필의 주장에 따라서 밤중에 국서를 다시 쓰게 하였고 다음날 새벽에 새로 쓴 국서를 가지고 부필은 되짚어 요(遼)를 향하여 떠났다. 부필을 매장(埋藏)시키려고 재상 여이간과 그 무리들은 나라의 정사(政事)를 망쳐놓으려고 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정도의 문제라면 당연히 재상인 여이간은 물러났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부필의 노력으로 요와 원만히 교섭을 끝낸 일을 자기의 공로로 가로챘을지 모를 일이다.

이번 선거는 도산(倒産)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거리에는 양산된 실업자가 갈 길을 잃고, 그 속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산업을 일으키고 실업자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제시도 없이 오직 코로나19의 방역만 온통 뉴스를 장식하였고, 팬데믹 이후에 나타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 뉴스는 보질 못하였다.

어쩌면 100년 대계(大計)는커녕 3개월 뒤, 6개월 뒤에 나타날 국가의 위기조차 걱정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없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당략(黨略)을 떠나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려는가!' 하고 피를 토하며 한탄한 사람을 선거 기간 중에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내게는 그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였던 기억만 남았다.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 가운데 부필처럼 피를 토하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왜 이리 눈에 안 띄었는가? 정말로 이 나라는 어찌할 셈인가!

權은 표준이자 척도

관중은 춘추시대에 제나라 재상으로서 제환공을 패자에 올릴 만큼 정치적 역량이 뛰어났던 정치가이다. 제갈량도 관중을 모델로 삼을 정도로 중국 역사상 5대 정치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 관중의 정치사상을 제나라 직하학궁에서 학자들이 집약해 놓은 책이 바로 『관자』이다. 직하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관자』「심술상」에는 모든 일은 법으로 감독하는데 법은 權에서 나오고 權은 도에서 나온다(事督乎法 法出乎權 權出乎道)고 말하고 있다. 權의 본래 뜻은 저울추이고 그로부터 가늠하다, 표준 등의 뜻이 파생되었다. 그래서 權은 사회가 공동으로 인정한 공정성과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가늠하는 표준과 척도가 될 수 있다. 법이 權에서 나온다는 것은 법이 모든 일을 감독할 수 있는 이유, 즉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밝힐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 權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정성과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자』「칠법」에서는 자와 치, 먹줄, 곱자와 그림쇠, 저울과 섬, 말과 휘, 평미레 등을 법이라 한다(尺寸也 繩墨也 規矩也 衡石也 斗斛也 角量也 謂之法)고 설명한다. 자와 치, 먹줄 등은 權과 마찬가지로 표준으로서 사물을 가늠하고 규격에 맞추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법이라 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權의 공정성과 권위는 도에서 온 것, 즉 천도의 자연스럽고 치우침이 없는 특성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權은 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權은 표준을 제시하고 도와 법을 연결시키며 도와 법의 결합을 도모하여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득성(得姓)의 계기도 기미에 밝고 권도에 달통해서(炳機達權) 세상의 형세 등을 저울질하여 표준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참고문헌: 『관자』, 『직하학 연구』, 바이시 白奚 지음, 이임찬 옮김)

편집국장 권행완

權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 혁 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